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김 형 태*

초 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496명에 대해 이들이 인식하는 학교환경과 학교적응 유연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를 '빈곤가정'으로 설정하였다. 빈곤과 비빈곤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여러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족 특성 중에 부모의 교육참여,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 또래 특성인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특성 중에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빈곤 청소년이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과 학년 등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의 교육참여 등 가족특성, 그리고 또래애착 등 또래특성을 통제한 후에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에 대해 각각 알아본 결과,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모두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표준화 계수를 통해 비교해본 결과, 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이 비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보다 학교적응유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학교환경인식이란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교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열악한 경제사회적 배경을 갖는 빈곤 청소년에게 교사의 역할은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빈곤 청소년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불리함을 학교 교사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함의와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빈곤, 학교환경, 학교적응유연성

*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upr4ever@gmail.com

I. 서 론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삶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깊고도 광범위하다. 이는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지 않더라도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사회가 목도한 바와 같다. 두 번의 경제위기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의 격변을 통해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빈곤이 다양한 인간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광혁, 2010a).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빈곤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이러한 현상이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개인의 운명에 맡기는 것과 같다. 가구소득과 빈곤지위는 아동의 인지 및 행동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3)가 있는데, 이러한 물질적 토대를 갖춘 가정에서 태어나는지의 여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사회에서 어느 나라든 아동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삶을 개인적 차원의 영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료(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에 14.4%였으며, 이는 2002년에 11.1%였던 것에 비해 3.3% 상승한 수치이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자료(2012)에 의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빈곤 인구는 약 480만 명(인구의 9.6%)이고,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은 14.3%에 이르러 OECD 평균 10.5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동의 빈곤율을 한국의 아동지표와 빈곤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제시한 김광혁의 연구(2010b)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8.3%이고 상대빈곤율은 13.6%이다. 이러한 수치는 1996년의 3.63%와 7.61%에 비해 각각 2.3배와 1.8배 늘어난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빈곤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빈곤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들(구인회,

2003;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김광혁, 2008; 김광혁, 2007; 김효진, 2008; 유정원, 김형모, 2012; 장희선, 김기현, 2014) 및 빈곤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현선, 2008; 오경자, 문경주, 2006; 하태정, 강현아, 2012)들은 빈곤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발달상의 어려움을 예측케 한다.

또한 선행연구(김광혁, 차유림, 2007;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에 의하면 빈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과 학교적응유연성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김예성, 박현선, 2007; 박현선, 1999) 나타난다. 김광혁(2010a)은 빈곤 여부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빈곤 여부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 소득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빈곤층에서만 소득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적응 또는 학교적응 유연성이란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 유연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제도교육 내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간에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환경인식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교적응유연성이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영향은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에 있어 다른지를 파악하여 논의하는 것은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연구(김광혁, 2010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은 소득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은 서로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 또래특성인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경험, 그리고 학교특성인 성적, 학교환경인식, 그리고 학교적응유연성을 활용하였다.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을 나누어 분리한 조건에 있는 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를 비빈곤 청소년과 비교하여 빈곤 청소년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의 개입과 지원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문헌고찰

1.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의 빈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청소년 자녀의 여러 발달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과로 학교적응 또는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ecker에 따르면 물질적 재화 등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의 학습이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기회나 경험, 환경은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광혁, 차유림, 2007에서 재인용). 이는 빈곤이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효진, 2008; 홍순혜, 이숙영, 2009) 자녀는 빈곤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박현선, 2008), 또래관계에서 보다 어려움을 겪으며(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유급이나 중퇴 등 학교에서의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Brooks-Gunn & Duncan, 1997), 보다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Wadsworth & Compas, 2002). 가족이 빈곤하면 청소년 자녀는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Skinner, Elder & Conger, 1992), 가족의 수입이 낮으면 외현화된 행동 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3).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갈등과 부모역할에 문제를 야기하여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아동의 지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Guo & Harris, 2000), 학업성취 등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구인회, 2003;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김광혁, 2008; 김광혁, 2007; 유정원, 김형모, 2012; 장희선, 김기현, 2014;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빈곤은 학교적응 또는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김광혁, 차유림, 2007; 박현선, 1999; 박현선, 1998;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조유리와 강현아의 연구(2011)에서는 빈곤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교우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적 자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빈곤은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현선, 2008; 오경자, 문경주, 2006; 하태정, 강현아, 2012), 아동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고(이봉주, 김세원, 2005),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보고된다.

개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영향력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빈곤의 문제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는 국가의 관리 영역이며, 교육학 등 학문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춘 전문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학교 교육과 다양한 개입활동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같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리함이 가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학교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과 같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사회적인 발달특성에도 초점을 맞춘 다양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서 교육이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

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과 성적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현실은 전인적 교육을 통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우리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과 학교적응유연성

Germain은 학교환경을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이란 교실, 운동장, 교직원실 등 크기 및 공간적 배치를 의미하고, 사회적 환경이란 학생의 규모나 숫자, 학교조직의 권위 및 통제구조형태, 교직원의 태도, 신념, 인식, 기대 등을 의미한다(박현선, 1999에서 재인용). Germain에 의하면 학교환경이란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의 운영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학급의 구성, 학급 당 학생의 수 등 학교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인지 권위적인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일반 교사는 학생과 교류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학생이 교사와 관계를 맺고, 학교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받아 인식하게 되는 학교환경은 학교에서의 적응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인식을 교사와의 친밀도, 공정한 대우, 학생들에 대한 지지 등 주로 교사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란 역경이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다 탄력적인 아동은 심리·사회적으로 적응적일 가능성이 높다(김형태, 2011). 학교적응유연성(school resilience)이란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능력(박현선, 1998)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유연성이나 학교적응유연성은 개인, 가족, 또는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적응유연성은 부모나 교사, 또래친구나 이웃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과 학교적응 또는 학교적응유연성은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김예성과 박현선의 연구(2007)에 의하면 민주적 학교분위기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교사의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박정희, 박정미, 2010).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들의 공정성, 안전성 등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박현선, 1999), 김형태(201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강남의 사립고 및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적은 강북의 고교 및 지방의 실업고에 비해 학교환경인식과 학교적응이 뚜렷이 높았으며, 학교환경인식은 학교적응에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자존감(김예성, 박현선, 2007; 이귀옥, 이미리, 2012)과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여(김광혁, 차유립,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역시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 또래와 관련하여서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적응을 도우며(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문제행동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김광혁, 차유립, 2007)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과 학년, 자존감, 성적,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그리고 또래애착 및 친구의 비행경험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나이는 학년으로 대체하였으며, 문제행동의 경험은 친구의 비행경험으로 대체하였다. 성적은 학교적응 관련 특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이지연, 정익중, 백종립, 2014), 성별과 나이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양현정, 2003; 이영분, 김나예, 2012)가 있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이귀옥, 이미리, 2012)도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7차년도 데이터는 2011년에 수집된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3)로서, 2005년도에 1차 패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12월 현재 2012년도에 이루어진 8차 패넬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총 8차의 패넬자료 중에 1차와 4차, 7차의 패넬자료에만 아동에 대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7차 년도 데이터는 아동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조사대상이었으며, 4차 조사에서는 동일한 대상이 중학교 1, 2, 3학년이 되었고, 7차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되어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넬 7차 년도의 조사에 응답한 고등학교 1, 2, 3학년 496명으로 남자와 여자는 각각 251명(50.6%)과 245명(49.4%)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교적응유연성이다. 학교적응유연성은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22문항 중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수업 태도가 좋은 편이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등 9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한 것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학교적응유연성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는 .752였다.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을 구별하기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모두의 연간소득에 대해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을 빈곤층 가구로 정의하였다.¹⁾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소년을 빈곤 청소년으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청소년을 비빈곤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0과 1을 부여하였다.

독립변인은 학교환경인식으로 Cavazos의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를 박현선(199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다’,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역문항으

1) 한국복지패넬은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을 저소득층 가구로 정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인 신뢰도는 .689였다.

연구의 통제변인은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년, 자존감과 성적, 가족특성으로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그리고 또래특성으로 또래애착과 친구의 비행경험이다. 성별은 여자 0, 남자 1로, 학년은 고등학교 학년에 따라 1, 2, 3으로 코딩되었다. 자존감은 Resenberg의 Self-Esteem Scale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적은 ‘아주 못함’부터 ‘아주 잘함’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국어와 수학, 영어점수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가족특성으로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은 부모님이 있거나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어른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서울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질문이 활용되었다. 각각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731과 .779였다. 또래특성은 또래애착과 친구의 비행경험인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서울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질문이 활용되었으며, 각각 4개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849와 .677이었다.

모든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변인의 응답범주와 신뢰도

	변인	문항수	응답범주	신뢰도	점수의 해석
가족특성	부모의 교육참여	4	1 - 4	.731	점수가 클수록 부모의
	부모의 지도감독	4	1 - 4	.779	교육참여/지도감독 수준 높음
심리적 특성	자존감	13	1 - 4	.883	점수가 클수록 자존감 높음
또래 특성	또래애착	2	1 - 4	.849	점수가 클수록 또래애착 큼
	친구의 비행경험	8	1 - 4	.677	점수가 클수록 비행경험 많음
학교 특성	학교환경인식	6	1 - 4	.689	점수가 클수록 학교환경인식/
	학교적응유연성	9	1 - 4	.752	학교적응유연성 긍정적인

3. 자료의 분석과 자료점검

본 연구를 위해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하였고,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간에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각각에 대해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회귀분석에 투입될 통제변인, 독립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증과 회귀분석 등 모든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점검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으로 최대 1.805였고,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첨도는 절대값으로 최대가 3.618이었고, 대부분 1.0 미만이거나 1.0을 크게 넘지 않았다.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으로 각각 2.0 또는 7.0 이상이 되면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성이 확보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점검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최대 .546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17에서 1.48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자기상관성 역시 Durbin-Watson값이 2.0 내외의 값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고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고교 청소년은 총 496명이며, 이들 중에 빈곤 청소년은 115명으로 23.2%, 비빈곤 청소년은 381명으로 76.8%였다. 성별과 학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251명과 245명으로 50.6%와 49.4%로 거의 비슷한 분포였고,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각각 173명, 165명, 158명으로 34.9%, 33.3%, 31.9%였다. 일반적 특성

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 고교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변인		빈곤 청소년	비빈곤 청소년	계
성별	남자	49명(19.5%)	202명(80.5%)	251명(50.6%)
	여자	66명(26.9%)	179명(73.1%)	245명(49.4%)
	계	115명(23.2%)	381명(76.8%)	496명(100%)
학년	고1	46명(26.6%)	127명(73.4%)	173명(34.9%)
	고2	38명(23.0%)	127명(77.0%)	165명(33.3%)
	고3	31명(19.6%)	127명(80.4%)	158명(31.9%)
	계	115명(23.2%)	381명(76.8%)	496명(100%)

2. 가족, 심리, 또래, 학교 특성과 빈곤에 따른 차이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 고등학교 청소년의 가족특성, 심리적 특성, 또래특성, 그리고 학교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간 이들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족특성을 보면 가족의 월간 생활비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410만원이었지만(최저 76만원, 최고 1,857만원) 비빈곤 청소년의 경우 474만원으로 빈곤 청소년의 198만원에 비해 약 2.4배나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 < .001$).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중에서는 교육참여만 차이가 있었는데, 비빈곤 청소년 부모의 교육참여가 빈곤 청소년 부모에 비해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더 높았다.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은 비빈곤 청소년이 2.93으로 빈곤 청소년의 2.87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래특성 중에는 또래애착이 유의수준 .05에서 비빈곤 청소년이 빈곤 청소년보다 더 높았으나 친구의 비행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특성 중에는 학교환경인식과 학교적응유연성에서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합인 성적에 있어서는 비빈곤 청소년이 빈곤 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p < .05$).

표 3

조사대상 고교 청소년의 특성과 빈곤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			평균		t
가족 특성	가족의 월간 생활비	빈곤 청소년	198만원	410만원	19.33***
		비빈곤 청소년	474만원		
	부모의 교육참여	빈곤 청소년	2.02	2.20	3.62***
		비빈곤 청소년	2.25		
	부모의 지도감독	빈곤 청소년	2.80	2.91	1.96
		비빈곤 청소년	2.94		
심리적 특성	자존감	빈곤 청소년	2.87	2.91	1.22
		비빈곤 청소년	2.93		
또래 특성	또래애착	빈곤 청소년	3.22	3.31	2.34*
		비빈곤 청소년	3.34		
	친구의 비행경험	빈곤 청소년	1.42	1.39	-.70
		비빈곤 청소년	1.39		
학교 특성	성적(국영수)	빈곤 청소년	2.77	2.93	2.23*
		비빈곤 청소년	2.98		
	학교환경인식	빈곤 청소년	2.98	2.98	0.03
		비빈곤 청소년	2.98		
	학교적응유연성	빈곤 청소년	3.11	3.15	1.21
		비빈곤 청소년	3.16		

* $p < .05$ *** $p < .001$

3.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투입될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 가장 큰 상관관계 계수는 .488로 부모의 교육참

2) 여기에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전체 청소년에 대한 것이며,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에 대해 각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상관관계 계수는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간의 관계로서 각각 .546과 .459였음.

여와 지도감독 간의 관계였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을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모든 변인을 그대로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4

회귀분석에 투입될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										
2 학년	-.042	1									
3 자존감	.111 [*]	.044	1								
4 성적(국,영,수)	.024	-.040	.307 ^{***}	1				1			
5 부모의 교육참여	.003	-.006	.276 ^{***}	.318 ^{***}	1						
6 부모의 지도감독	-.187 ^{***}	.044	.226 ^{***}	.169 ^{***}	.488 ^{***}	1					
7 또래애착	-.043	-.025	.282 ^{***}	.066	.116 [*]	.189 ^{***}	1				
8 친구의 비행경험	.160 ^{***}	-.068	-.084	-.140 ^{***}	-.096 ^{***}	-.228 ^{***}	-.154 ^{***}	1			
9 학교환경인식	.015	.016	.309 ^{***}	.089 [*]	.189 ^{***}	.155 ^{***}	.222 ^{***}	-.303 ^{***}	1		
10 빈곤여부	.088	.067	.055	.100 [*]	.161 ^{***}	.101 [*]	.105 [*]	-.032	.001	1	
11 학교적응유연성	-.023	-.030	.462 ^{***}	.363 ^{***}	.317 ^{***}	.291 ^{***}	.231 ^{***}	-.397 ^{***}	.517 ^{***}	.054	1

* $p < .05$ ** $p < .01$

다음의 표는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에 대해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통제변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 그리고 또래특성이 투입되었다. 먼저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중에 자존감과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또래특성 중에 친구의 비행경험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비행경험은 비빈곤 청소년에게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지만, 빈곤 청소년에게는 유의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자존감과 성적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모두에게서 유의했지만 두 변인 모두 빈곤 청소년에게서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빈곤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과 성적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친구의 비행경험이 비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쳤지만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빈곤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비행이 보다 광범위하게 경험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빈곤 청소년의 친구의 비행경험 수준이 비빈곤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를 추정케 한다.

표 5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변인		빈곤 청소년			비빈곤 청소년		
		B	S.E.	β	B	S.E.	β
통제 변인	성별(0:여자, 1:남자)	-.070	.057	-.083	-.004	.029	-.005
	개인적 학년(고1,2,3)	-.032	.032	-.062	-.019	.017	-.044
	특성 자존감	.332***	.071	.359***	.165***	.034	.215***
	성적(국, 영, 수)	.111**	.034	.214**	.071***	.017	.179***
	가족 부모의 교육참여	-.012	.054	-.018	.049	.027	.085
	특성 부모의 지도감독	.064	.047	.106	.033	.031	.049
	또래 또래애착	-.074	.064	-.083	.033	.033	.040
	특성 친구의 비행경험	-.145	.074	-.145	-.210***	.036	-.240***
독립변인	학교환경인식	.446***	.079	.433***	.264***	.035	.318***
R^2		.638			.445		
F		19.98***			32.63***		
Durbin-Watson		2.094			1.956		

** $p < .01$ *** $p < .001$

독립변인인 학교환경인식은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모두에게서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해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β 값이나 절대적인 크기인 B값 모두 빈곤 청소년이 더 컸다. 즉 비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에 대한 β 값은 .318이었지만 빈곤 청소년의 경우 .433으로 거의 1.4배 정도 빈곤 청소년이 높았고, B값에 있어서는 비빈곤 청소년이 .396이고 빈곤 청소년이 .670으로 빈곤 청소년이 거의 1.7배 높았다. 이는 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와의 관계 또는 교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교환경이 빈곤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예측을 위한 각 모형의 설명력인 R^2 값 역시 .638과 .445로 높은 편이었으며, 빈곤 청소년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비빈곤 청소년의 모형에 비해 거의 20% 가까이 높아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예측모형으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와 같은 결과는 비빈곤 청소년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빈곤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영향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이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496명의 청소년을,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빈곤 청소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가족 특성, 심리적 특성, 또래특성, 그리고 학교특성을 비교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변인만 살펴보면, 먼저 가족특성으로 월간 생활비와 부모의 교육참여에 있어 비빈곤 청소년이 빈곤 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 월간 생활비는 비빈곤 청소년이 빈곤 청소년에 비해 거의 2.4배나 많았다.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래특성 중에 또래애착은 비빈곤 청소년이 더 높았으나 친구의 비행경험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학교특성 중에 학교환경인식이나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는 없었으나 국어와 영어, 수학 점수로 이루어진 성적은 비빈곤 청소년이 더 높았다.

3)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회귀식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Chow test를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에 대해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회귀식은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w test는 $\frac{(S_C - (S_1 + S_2))/k}{(S_1 + S_2)/(N_1 + N_2 - 2k)}$ 값을 구하여 자유도 $(N_1 + N_2 - 2k)$ 에서 F 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하게 된다. 여기에서 S_C 는 전체집단에 대한 잔차의 제곱합(Sum of Squared Residuals)이고, S_1 은 비빈곤 청소년에 대한 잔차의 제곱합이며, S_2 는 빈곤 청소년에 대한 잔차의 제곱합이다. N_1 과 N_2 는 각각 비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의 사례수이고, k 는 회귀식에 투입된 계수(parameter)의 수이다.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각각에 대해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년, 자존감과 성적을, 가족특성으로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을, 그리고 또래특성으로 또래애착과 친구의 비행경험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Chow test를 통한 두 회귀식의 차이검증 결과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에 대한 회귀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환경인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도 높았다. 통제변인 중에는 자존감과 성적이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존감의 영향은 김예성과 박현선의 연구(2007)와 같은 맥락이었다. 특히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존감과 성적의 영향이 빈곤 청소년에게서 더 크다는 것은 빈곤 청소년의 성적이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존감 역시 빈곤 청소년이 더 낮음으로 인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자존감과 성적의 영향이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성적향상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보다 적응적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구의 비행경험은 비빈곤 청소년에게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빈곤 청소년에게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즉 두 집단 모두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도 높았으나, 친구의 비행경험은 비빈곤 청소년의 경우에만 학교적응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즉 비빈곤 청소년의 친구의 비행경험이 높으면 학교적응유연성은 낮아지지만 빈곤 청소년의 친구의 비행경험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빈곤 집단의 친구의 비행경험이 비빈곤 집단보다 약간 더 높고, 학교환경인식과 학교적응유연성은 빈곤 집단이 약간 더 낮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친구의 비행경험이 비빈곤 집단에서는 .001 유의수준, 즉 99.9%의 신뢰수준에서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빈곤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집단이 이렇게 다른 것은 대부분 빈곤 청소년의 친구의 비행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반면에, 비빈곤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비행수준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양하게 변할 때, 이러한 차이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빈곤 청소년의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현선의 연구(1999)와 같은 맥락이고, 김예성과 박현선의 연구(2007)에서도 고위험 상황의 학생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예측하는 두 모형 간에는 설명력의 차이가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비빈곤 청소년 모형의 설명력(R^2)은 44.5%였으나 빈곤 청소년 모형의 설명력(R^2)은 63.8%나 되어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비빈곤 청소년보다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더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란 학업적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빈곤 청소년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와 건전한 성인 역할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박현선, 1999)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의 근본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업성취 이외의 영역에서 개입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그 중 하나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공교육체계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해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NASW, 2002; 이상균, 2008에서 재인용)으로서 학교를 둘러싼 현장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활동을 보다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사회복지사는 특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빈곤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적은 빈곤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에서의 교사의 공정한 태도, 교사의 지지와 격려 등은 학교적응을 끌어올리고 그 외에 다양한 심리·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단순히 학생들을 만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장과 교감 등 학교운영자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개별 교사들과 관계를 맺고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학교환경의 영향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

사회복지사의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학교사회복지 관련 협회나 학회 및 사회복지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들이 학교로 배치되고 있고(홍순혜, 안정선, 조성심, 엄경남, 방진희, 2013), 학생의 변화 뿐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에까지 그 역할이 일부 미치고 있지만(김지연, 2006) 학교사회복지가 아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발전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홍순혜, 안정선, 조성심, 엄경남, 방진희, 2013),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유한 직무가 명확하게 교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주석진, 조성심, 2012). 그러나 최근에 학교폭력, 비행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된다. 특히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적 성과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격차를 학교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은 학업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입을 통해 개인적·가정적 배경의 영향이 학교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격차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와 함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고 체계화되어 전문성을 갖추나갈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281-306.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김광혁 (2010a).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빈곤의 기간 및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1), 5-31.
- 김광혁 (2010b). 한국 아동의 생존권: 빈곤 및 가족, 주거 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아동과권리**, 14(1), 1-39.
- 김광혁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115-138.
- 김광혁 (2007). 경제적 박탈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아동권리연구**, 11(2), 187-206.
- 김광혁, 차유립 (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투자)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9-51.
- 김지연 (2006). Q방법론을 활용한 초·중등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직무 유형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1-25.
- 김예성, 박현선 (2007). 초등학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65-97.
- 김형태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 요인: 미국 유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269-296.
- 김형태 (2011). 그룹홈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 그리고 심리·사회적응의 종단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37-164.

- 김효진 (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39(5), 33-42.
- 박정희, 박정미 (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25-134.
- 박현선 (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113-137.
- 박현선 (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 105-129.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12). **2012 보건복지백서**.
- 양현정 (2003).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5(1), 59-76.
- 유정원, 김형모 (2012). 빈곤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16(2), 231-257.
- 이귀옥, 이미리 (2012).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봉주, 김세원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347-373.
- 이상균 (2008). 수월성과 경쟁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사회복지의 대응전략: 미국 No Child Left Behind 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3, 59-79.
- 이영분, 김나예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151-180.
-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 (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학회지**, 35(2), 1-23.
- 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185-216.

- 조유리, 강현아 (2011). 아동빈곤이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권리**, 15(3), 369-390.
- 주석진, 조성심 (2012). 학교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윤리관련 특성 요인이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21-40.
- 하태정, 강현아 (2012). 가족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역 사회 환경과 부모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0, 139-16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홍순혜, 안정신, 조성심, 엄경남, 방진희 (2013). 학교사회복지실천가의 현장슈퍼비전 현황과 발전 방안. **학교사회복지**, 24, 197-218.
- 홍순혜, 이숙영 (2009). 주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8, 137-169.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3), 526-541.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3).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77.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431-447.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 719-734.
- Skinner, M. L., Elder, G. H., & Conger, R. D. (1992).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adolescent agg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3), 259-276.

- Wadsworth, M., & Compas, B. (2002). Coping with family conflict and economic strain: The adolescent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2), 243-274.
-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on school resilience: A comparison between poor and non-poor adolescents

Kim, Hyoungta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comparing the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and the school resilience of 496 adolescents who were high school students. All the levels of poor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non-poor adolescents in term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GPA as could be predicted. When analyzed separately for poor and non-poor adolescents, the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significantly affected school resilience,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larger in poor adolescents than in non-poor adolescents. The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includes the circumstances which teachers help create and also includes the relationships held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is means that the roles of both the school and teachers are more important for poor adolescents. The effects of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are greater in poor adolescents than in non-poor adolescents since both the school and teachers can, to some extent, alleviate the negative results of poor adolescents' personal and social disadvantages. These findings formed the basis for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included in this paper.

Key Words: adolescent, poverty, resilience, school environment

투고일: 2014. 12. 15, 심사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2. 9

* Seoul Christian University